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금강禪과 죽은 삶

학승이 물었다.
“껍데기를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이 원인인가?”

問 不見邊表時如何 師云 因什麼與麼

껍데기는 양변(兩邊)의 세계이다. 상대적인 개념의 세계, 즉 선악, 빈부, 장단, 중생과 부처, 염정 등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 양변에 걸린다. 양변은 껍데기의 세계이다. 사물의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양변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양변은 완전히 사라진다. 더 이상 삶에 있어서 양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누가 이런 경지에 들어갔다면 스승은 어떻게 평할까? 조주 선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반문을 통한 가르침이다.

양변은 알맹이가 아니고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의 주장이 떨어진다. 마음은 점점 아무 것도 세우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결국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안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 안은 어떤 곳인가? 그 안은 부처도 죽고 조사도 죽고 천재도 죽고 둔재도 죽는 자리이다.

학승이 물었다.
“맑으나 맑지 않고 흐리나 혼탁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가?”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맑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다.”
학승이 물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물었다.
“하, 가련한 인생이로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시방을 관통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금강선(金剛禪)을 떠나는 것이다.”

問 澄而不清濁而不濁時如何 師云 不清不濁 云是什麼 師云 也可憐生 云如何是通方 師云 離卻金剛禪

우리의 자성은 원래 맑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다.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다. 마치 허공과 같다. 그래서 중생의 자성을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다. 더 이상 알려하지 말라. 자성을 무엇이라고 단정하면 그 순간 지식의 때가 묻는다. 그러한데 또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허공이 형체가 있는가? 무엇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굳이 허공을 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대의 환상의 세계일뿐이지 허공의 참 모습이 아니다. 허공은 그리는 것이 용서가 되나 자성을 그리는 것은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금강선은 절대선이다. 깊이 좌선 삼매에 들면 순일무잡한 정신세계에 이른다. 단 한 번의 망념도 없이 일념이 만년(萬年)을 가듯 조용히 흐른다.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생겨도 전혀 모른다. 이것을 금강과 같이 단단한 선(禪)이라해서 금강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방을 관통한大人은 금강선도 버린다. 금강선

에 빠져 평생 돌이나 나무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죽은 삶이다. 죽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주머니 속의 보물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싫어하는가?”
학승이 물었다.
“써도 없어지지 않을 때는 어떠한가?”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가(自家)의 보물은 원래 무겁다. 또 이르되 사용하면 무겁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볍다.”

問 如何是囊中寶 師云 嫌什麼 云用不窮時如何 師云 自家底還重否 又云 用者即重不用即輕

주머니는 몸이다. 몸속에 보물은 무엇인가? 흔히들 마음이나 자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조주 선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수행자는 좋아하고 싫어함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하기를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한다 말인가?”라는 뜻으로 힐책성 반문을 한 것이다. 보물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도가 깊어지면 대소구별과 안과 밖이 없어진다.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있는가?

뭐라고 이름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고 쓸수록 커지고 무거워진다. 그러나 쓰지 않으면 가벼워져 있는지도조차 모른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배운 것은 적어도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

(양긱따라 니카야)

오랜 세월 철관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절반쯤의 시간은 철관을 등지고 서있었다. 선생도 해보았고, 학생도 해보았다. 그리고서 얻은, 나의 결론 : 선생보다는 학생이 더 행복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의 하나 : 학생은 아직 자기분열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나.

선생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은 불가피하게 자기분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점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둔감하게 지내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주 소수일망정, 삶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서 자기분열에 빠지지 않은 분이 계시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아직 나는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자기분열증이 심한 편인데, 이를 치유하는 나 나름의 처방이 곧 글쓰기다. 매일같이 써대는 글들(거의 전부, ‘써달라’는 데가 없음에도 쓰는 글들)이 나에게 최고의 힐링(healing)이 된다. 그야말로 다양한 문장 형식의 글을 쓰지만, 특히 나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데에는 시(詩)만한 것이 없다. ‘아마추어 시인’이 된 까닭이다.

그럼 도대체 내게, 아니 나와 같은 ‘먹물들’...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식을 분열시켜서 정신건강에 빨간 불을 켜놓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야 물론 삶과 삶의 불일치,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삶·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알기는 아는데, 그 없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모순. 차라리 모르던 대로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배움은 그러한 자기의 위선을 예리하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그가 잃는 병의 본질은 “다양한 문장 형식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폭넓게 알고 있지만,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참된 지식인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그 건너편에 자기분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니, 하나의 거울로 세우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문장 형식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폭넓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

서 살아간다.”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부처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지식인일 터이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와 유사하게, 자기분열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배움 자체가 아예 적어서,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 삶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 아니라, 삶 자체가 너무 적어서 자기분열을 초래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과연 행복하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민이 갈 뿐, 본보기로 삼을 수는 없다. 배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이 향상시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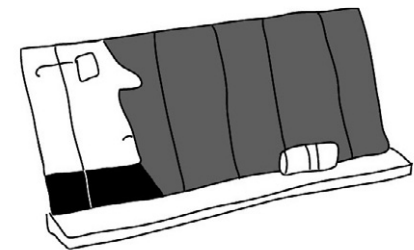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기는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양한 문장 형식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지만,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다. 그렇다. 알은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 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자기분열증의 지식인들보다는 훨씬 행복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나처럼 자기분열증에 시달리는 지식인들은 어떻게 할까? 할 수 없다. 알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 모순과 자기분열을 예민하게 자각할 수밖에. 깨어있을 수밖에. 길이 없다. (일야 편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512-513쪽.)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29>

사법인-④ 열반적정

세상의 모든 현상법은 생멸변화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소유물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생각하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접하게 된다. 애착하던 것이 변화와 함께 사라져 갈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고(苦)라는 것을 자각할수록 인간은 또한 그 고로 부터 벗어난 세계를 꿈꾸게 된다. 불교에서는 고로 부터 벗어난 상태를 열반적정(涅槃寂定)이라고 한다.

열반은 밤이로 니르바나(nirvāṇa)이고 ‘불어서 끄는 것’, 혹은 ‘불어서 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번뇌의 불을 끄는 것이 열반이다. 여기에서의 불은 말하자면 촛불과 같은 불이다. 양초의 촛불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녹여버리듯 중생의 번뇌라는 촛불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태워 없애 버릴 때까지 괴로움 속에서 발버둥 치게 만든다. 그 불을 불어 꺼버리면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데 그러한 적정(寂定)의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초기불교에서는 탐진저 삼독(三毒)이 번뇌의 불에 비유된다.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을 꺼 버리면 그것이 곧 열반이 된다. 열반적정이란 이러한 번뇌가 사라져 안은

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으로 열반은 부처님의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 죽음을 입멸(入滅)이라 하고 이 입멸에 대한 경전을 열반경(涅槃經), 입멸에 대한 그림을 열반도(涅槃圖)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열반은 반열반(假涅槃)을 줄인 말로 모든 번뇌가 끊기고 육신마저 사라진 후에 얻어지는 완전열반을 가리킨다.

부파불교에서는 이 완전열반을 무여열반(無餘涅槃)이라고 하고 이에 대비되는 말로 유여열반(有餘涅槃)을 거론한다. 유여열반은 모든 번뇌를 끊어서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과거의 업과 그 과보로 의지하게 되는[餘依] 육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처님조차도 육신이 있는 한 늙고 병들어 가는 육체의 고(苦)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여·무여열반에 관한 논의는 외도(外道)의 영향으로 생긴 것으로 본래 불교에는 없는 사상이었다. 니르바나(nirvāṇa)는 고행주의자들인 자이나교 등에서도 궁극의 이상으로서 여겨졌고 오히려 이것이 불교에 도입됐다고 하는 설도 있다. 인도의 많은 종교나 철학에서 열반은 공통적으로 인생의 이상이자 생사를 초월한 것으로 설명되

지만 그 내용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학설이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대승불교에 이르면 부파불교의 두 열반에 자성정열반(自性清淨涅槃)과 무주처열반(無主處涅槃)이 추가돼 네 종류의 열반이 언급된다. 자성정열반이란 이 세상의 모든 마음과 법은 본래 그 자성이 청정한 열반의 세계라는 의미이다. 무주처열반이란 큰 지혜는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큰 자비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대승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은 생사의 문제를 바로 보는 지혜를 통해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해탈을 얻었으나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인해 스스로 번뇌가 소멸된 열반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는다.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이 무주처열반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지향점이자 유일하게 인정된 부처님의 열반이었다.

특히 어떤 종류의 고정된 사상에 논과함으로써 대승의 종조(宗祖)로 불리는 용수(龍樹)는 열반의 세계를 세속에서 번뇌와 함께 살아가는 중생들의 세계와 동떨어진 것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삶과 죽음이 곧 열반이라는 관점에서 열반을 일상생활의 실천과 연관 지었다. 그러한 열반적정이야말로 적극적인 이타활동인 보살행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日 龍樹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탐진치 번뇌의 불 끄고 ‘꿈’ 벗어난 상태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크로미계, 펜던트, 이부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된 모주의 구멍에 크로미계를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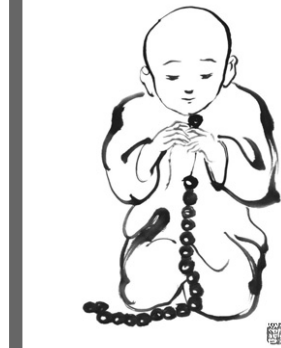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상용신인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5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들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